

동물의 고통과 보살핌에 관한 연구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Pain of Animals and Care: Focused on Elephant Nature Park in Thailand

저자 (Authors)	이동옥 Lee Dongok
출처 (Source)	페미니즘 연구 11(1) , 2011.4, 133-165(33 pages) Issues in Feminism 11(1) , 2011.4, 133-165(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여성연구소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46493
APA Style	이동옥 (2011). 동물의 고통과 보살핌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1(1), 133-16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동물의 고통과 보살핌에 관한 연구: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동 옥**

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유기동물과 안락사,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 동물에 관한 폭력이 사회적 쟁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물의 권리, 보살핌, 책임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서구의 개발, 남성중심적인 세계관이 여성, 자연, 동물과의 관계를 변형, 왜곡시켰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또 다른 타자인 동물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병행했다. 현지조사는 동물의 성역으로 알려진 태국의 Elephant Nature Park를 방문해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태국인들은 코끼리를 숭상해 왔지만, 근대에 코끼리를 벌목과 관광사업 등의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코끼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ENP의 창립자인 렉은 고산족과 불교문화의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과의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상치받은 코끼리를 구조하고 있다. 그녀의 통찰력은 인간의 지배와 폭력으로 왜곡된 동물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동물 보살핌은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인간이 동물의 위치에서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때 동물과의 유대는 강화되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

주제어

여성주의, 동물, 고통, 보살핌, 관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005-J02501).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여성학.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유기동물의 증가와 안락사,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동물의 살처분은 동물의 고통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은 종차별주의(specism)와 인간의 기득권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근대 서구 남성의 자연, 여성, 동물에 대한 지배와 착취에 관심을 가져 왔다. 또한 이성/감정, 문화/자연, 남성/여성, 인간/자연, 동물, 정신/몸의 이분법에 반대하고 자연, 감정, 몸, 여성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성차별만큼 동물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다. 여성들이 동물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동물의 타자성에 대해 무지하다면 진정한 평등을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동물과의 관계와 동물에 대한 책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학대받는 동물의 컴퓨터로 알려진 태국의 Elephant Nature Park(이하 ENP)를 중심으로 동물 보살핌의 사례를 살펴본다. ENP는 벌목, 쇼, 트레킹, 구걸, 상업행위 등으로 학대받고 부상당한 코끼리를 비롯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있다. 창립자 렉(Sangduen Lek Chailert, 50세)과 직원들은 동물들이 인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숲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

이 연구는 ENP의 사례를 통해 인간이 동물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동물의 삶에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와 보살핌에 관해 통찰력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동물 보살핌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병행했다.

첫째, 문헌연구는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물의 권리 담론과 보살핌 담론을 생태여성주의, 동물 보살핌에 관한 여성주의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동물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2008년 1월 1일~2011년 2월 20일까지 일간지를 검색했고 그 중에서 보도기사 53편과 칼럼 3편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동물폭력과 구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 7편과 극장에서 개봉, 상영된 다큐멘터리 1편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지조사는 태국 치앙마이의 Elephant Nature Park(이하 ENP로 표기)¹⁾를 방문해서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참여관찰은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ENP의 생태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ENP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객들의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았다. ENP에서 생태여행은 자연 속에서 코끼리를 보살피면서 코끼리와 함께 노는 여행으로서 서구의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인터뷰는 경영자 록을 비롯해서 직원 2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은 ENP의 운영, 동물 보살핌에 관한 신념, 동물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업무, 사업 방향 등에 관한 것이었다.

1) <http://elephantnaturepark.org/>. 록은 1992년부터 학대받는 코끼리를 구조하기 시작했고, 1996년에 ENP를 창립했으며, 2003년 치앙마이에 코끼리의 서식지를 마련했다.

〈표 1〉 인터뷰 대상의 인적 사항

이 름	성 별	직 위	연 령	근무 연한	학 력
렉	여	경영	50	17년	대 졸
켓	여	행정	54	3년	대 졸
넷	남	가이드	25	2년	대 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동물의 권리 담론과 보살핌 담론을 통해 살펴본다. 자율성에 기반한 동물권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관계적 맥락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인식할 때 동물의 삶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살핌 담론을 통해 고찰한다.

둘째, 관계적 맥락에서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과 동물과 교감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동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손익계산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동물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살펴본다.

셋째, ENP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활동과 보살핌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ENP의 활동이 동물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찰한다. 아울러, 생태여행이 코끼리 보살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보살핌의 대안을 탐색한다.

3. 이론적 배경

1) 동물과의 관계와 책임

(1) 여성, 자연, 동물의 관계

여성주의자들은 인간 관계, 특히 성별 관계뿐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왔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남성, 기술, 개발중심적 사고를 여성과 자연에 관한 지배, 억압의 주요한 원천으로 비판해 왔다 (Gaard, 1993; 시바, 1998). 머천트(Merchant)는 여성과 자연이 남성 과학의 지배를 받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성과 자연은 고유의 메커니즘을 갖는 유기체이고 다른 생명체를 보살피는 양육자로서 신비적인 존재였지만, 근대 과학은 자연과 여성을 예측, 통제, 조절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머천트, 2005: 19-27). 과학의 '객관적' 지식은 자연과 여성의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타자의 지배와 착취에 기반해서 축적되었다. 도노반(Donovan, 1993)은, 여성들이 가족을 보살피는 것처럼, 자연이 인간을 위해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을 위한 생산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성과 자연은 노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주변화되어 왔다.

과학은 조절, 통제라는 명분하에서 생태계의 흐름을 파괴해 왔다. 특히, 벌목, 서식지 분열, 오염 등의 환경 파괴, 사냥, 어업, 포획, 개체군의 과잉 개발과 외래종의 도입은 생물종의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바르보, 2009; 호켄, 2007; 시바, 1998). 벌목은 지역주민이 생존을 위해 땀감이나 집, 가구 등을 만들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유착하에 대규모로 진행되어 왔다(젠슨·드래펀, 2007: 18, 27). 호켄(Hwaken)은, 숲의 파괴가 여성의 가난과 직결되고,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의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한다(호켄,

2007: 226).

그러나 지역여성들은 개발에 순응한 것만이 아니라 벌목에 반대하고 숲을 보호하는 운동에 참여해 왔다.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는 여성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다. 케냐에서 여성들의 운동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땀감과 음식을 얻으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기초가 되었다(마타이, 2005). 또한 인도의 칩코운동은 가르왈 지역의 여성들이 생계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끌어안고 개발을 저지한 것이다(시바, 1998). 이 운동에서 여성들은 환금작물을 심어 돈을 벌자는 지역 남성의 주장에 반대해서 인간에게 신선한 공기와 식량을 제공해 주는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태국 여성 렉은 벌목으로 파괴된 숲을 살리고 벌목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코끼리를 구조해서 치료해 왔다. 렉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회적 흐름에 저항하면서 보살핌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식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낫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창세 1, 28-31)²⁾

구약성서의 창세기는, 인간이 청지기, 관리자로서 동물을 보살피는 책임을 갖는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특권을 받았다고 창세기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다(한면희, 1997: 55;

2) http://info.catholic.or.kr/bible/bbl_read_sori.asp 참조.

한면희, 2007).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모든 존재의 가치의 기준이고, 자연이나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다(한면희, 1997: 58-66). 생태신학자 마르티(Marti)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창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동물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마르티, 1995).

한편, 인디언들은 사냥에서 동물을 정복했다는 기쁨을 느끼기보다 동물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인디언들은 동물과 교감하면서 살아 왔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먹이로 내주는 동물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해 왔다(오히에사, 2004: 148, 179, 184-185)³⁾.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육식문화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를 고찰하게 한다.

몇몇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육식을 동물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여성주의자들은 채식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담스(Adams, 1993; 아담스, 2006; Adams, 2007)는 동물을 사냥하고 추적하고 거래하며 먹는 인간(남성)의 행위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연관짓는다. 그녀는 동물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부장제 지배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

김진석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간의 입장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김진석, 2005: 13). 첫째,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질병, 장애 등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은 실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인간에게 유익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되,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동물의 권리도 인권만큼 양보할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거나 착취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권리는 강자에 의해 약자의 이해가 유린되거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가 희생되는 것을 보호한다”(한면희, 1999: 74). 대부

3)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숲의 나무들과, 자신들을 양식으로 제공해 주고 가족까지 우리의 옷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짐승들에게…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류시화 편역, 2003: 34)

분의 인간은 동물학대에 반대하지만, 인간과의 이해가 상충될 때 동물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김진석, 2005: 9). 그러나 싱어는, 동물의 권리가 인간의 이익과 충돌될 때 동물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동물의 주변화된 위치로 해석한다(싱어, 1999: 57).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가의 여부는 동물권 이론가들에게 중요한 논쟁이 되었다. 데카르트 철학자들은 동물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롤랜즈(Rowlans)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과학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롤랜즈, 2004: 25-30). 첫째, 행동학적 측면에서 동물들은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을 피하려고 하고 자극을 피하지 못한 경우 저항하고 자극으로 상처입은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해부학적 측면에서 척추동물은 신경메커니즘이 작동하므로 통증에 반응하고 몇몇 무척추동물도 마취제나 진통제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진화론적 측면에서, 동물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피할 수 있다. 동물이 통증을 못 느끼고 자극을 피하지 않았다면 오랜 역사 동안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동물이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철학자 싱어(1999)와 리건(Regan, 1983)은, 합리적 이성의 틀에 준거해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동물이 자율적 주체라는 것을 논증한다(Slicer, 2007). 싱어는 동물이 자율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도덕적으로 논증한다(싱어, 1999: 44). 첫째, 동물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동물의 억압을 통해 얻는 육식문화와 동물을 이용해도 한다는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면 동물의 권리를 고려하고 고통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어의 ‘동등배려’의 원칙은 동물이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회피한다면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김진석, 2005: 266, 286).

또한 리건은, *The Case for Animal Rights*(1983)에서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성이 아닌 '감정'에 기반해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건은, "동물이 비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견해에 반대한다. 리건은, 환자가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이 존중되는 것처럼 동물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Donovan, 1993: 167).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식 없는 환자는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인준된 존재이지만, 동물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리건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의식 없는 환자의 자율성을 동물의 자율성에 적용하고 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싱어와 리건은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동물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동물의 고통을 논의하는 데에 합리적 이성에 준거하지만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

(3) 권리 담론의 한계와 보살핌 담론의 의의

여성주의자들은 동물윤리학에 보살핌의 윤리를 접목시킨다. 보살핌의 윤리는 동물윤리학의 이성중심주의를 보완하고 인간과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인격으로 동물을 해석한다(Donnovan & Adams, 2007). 영장류 동물학자 스멧(Smuts)은, 인간과 동물이라는 두 존재가 하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구체적인 타자로서 동물과 상호작용할 때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스멧, 2006: 164, 168). 또한 도노번(Donovan, 1998)은 여성동물권 이론가들과 여성철학자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동물과의 관계와 인간의 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그녀는, 동물과의 정서적 유대와 동료관계를 강조한 미

즐리(Midgley)나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해온 구달(Goodall)과 맥클린톡(McClintock) 같은 여성과학자들에게서 그 예를 발견한다(Donovan, 1993). 또한 철학자 슈타인(Stein)의 “감각적 감정이입”(sensual empathy), 베이유(Weil)의 “관심 있는 사랑”(Attentive love), 머독(Murdoch)의 “동일시의 오류” 등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적용시킨다(Donovan, 2007: 190).

권리 담론이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타자와 거리두기를 통한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을 전제한다면, 보살핌 담론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인간을 전제한다(길리건, 1997; Maihoffer, 1998). 또한 권리 담론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제한한다면, 보살핌 담론은 관계적 맥락에서 상호적인 책임을 논한다. 보살핌의 윤리는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고, 동물에 대한 책임은 맥락적, 상황적,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생명 보존과 보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Donovan, 1993; Donovan & Adams, 2007: 14). 즉, 보살핌 담론은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적합한 환경에 살도록 동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도덕적 책임으로 제시한다(Donovan, 1993: 185; Donovan, 2007: 192; Donovan & Adams, 2007: 14).

권리 담론은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면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물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권리 담론은 동물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하지 설명하지 못한다(Curtin, 2007: 90-95).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능력을 갖추기보다 동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Donovan, 1993; Slicer, 2007; Donovan & Adams, 2007: 6).

그러나 동물윤리학에 보살핌의 윤리를 적용하는 데에 여성주의 내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차원에서 보살핌은 여성의 역할로서 가부

장제하에 강제되었고, 여성들이 무권력한 현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뿐 아니라 동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Adams, 2007: 199).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를 옆에서 보살피는 여성들은 그 역할을 외롭게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고,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하면서 보살핌을 해온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리치, 1995; Kittay, 1999; Walker,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 보살핌의 실천이 여성에게 억압이 되지 않으면서 동물과의 관계 유지와 지배, 착취의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러딕(Ruddick)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기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억압과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러딕, 2002). 보살핌은 타자에 대한 고통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전쟁, 부정의, 차별, 폭력 등을 근절, 시정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다(러딕, 2002: 365-377). 보살핌은 생물학적 여성, 어머니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여성,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다. 보살핌은 타자에 대한 개방성, 연민, 우정, 신뢰의 관계 속에서 공감의 능력을 보여 주고 사회적 유대와 협동을 길러 준다(Held, 2006; Goodin & Gibson,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 보살핌은 동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한편,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폭력을 통해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동물 담론

(1) 동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도시의 삶에서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적절한 거리두기는 사생활과 안락

함을 보장하고 선택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표면적으로 타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석되었지만, 원자화되고 고립되고 소외된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에게 친밀성의 욕구를 강화시켰다(기든스, 1996). 친밀성의 욕구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⁴⁾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족’에 비유한다. 가족이란 정서적, 경제적 공동운명체로서 해석된다. 그러나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은 회피된다. 반려동물이 나이들고 아프고 다쳤을 때, 인간이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이사, 휴가 등으로 동물을 보살필 수 없을 때, 동물은 인간에게 버림받는다(후쿠오카, 2010: 21). MBC스페셜 “도시의 개”(2010)와 KBS 시사기획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예의”(2010)에서는 유기동물, 동물학대, 안락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불안한 위치를 드러낸다.⁵⁾ 이웃의 반려동물은 소음, 배변 등으로 냄새와 질병을 가져오고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고 해석된다.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잔혹한 양상을 드러내지만,⁶⁾ 동물학대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물 보살핌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물의 노화는 인간의 몸에 비해 세 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동물의 수명은 인간보다 짧기 때문에, 인간은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⁷⁾ MBC 스페

4) 동물운동가들은 애완동물 대신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애완동물은 병들고 다치면 인간에게 버림받는 인형이나 장난감인 반면,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회로에락을 함께하는 친구를 의미한다.

5) 2010년 한국수의학검역원의 보고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증가는 8만 마리에 육박하고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후 죽음을 당하고 있다.

6)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때려서 죽인 사건(『헤럴드경제』, 2010. 6. 29), 화분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웃집 고양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죽인 사건(『헤럴드경제』, 2010. 9. 15), 고교생 2명이 개 9마리를 훔쳐 몽둥이로 때려 죽인 사건(『서울신문』, 2011. 1. 22) 등이 있다.

7) 영화 “구구는 고양이이다”(2008)에서 만화가 아사코(코이즈미 코코 분)는 작업에 몰두하느

설 “노견만세”(2009)에서는 10여 년 이상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던 나이든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생명의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고, 개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죽어갔다. 동물운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연평도를 방문했고, 많은 시민들도 구조활동에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했다.⁸⁾

셋째, 살처분의 이름하에서 행해진 동물의 대량학살은 생명권뿐 아니라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 즉 공무원, 군인, 축산농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물단체 회원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종교인들은 동물의 희생을 애도하는 제의를 올리면서 육식 문화를 비판한다.⁹⁾

넷째,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활동과 보호운동이다. 생태계 파괴는 먹이사슬의 고리 속에서 야생동물의 멸종, 다른 동물종의 멸종, 인간의 삶과 연결된다. 수의사들은 도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하고,¹⁰⁾ 밀렵으로 희생된 야생동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다친 동물을 치료, 보호한다.¹¹⁾ 또한 모피의 제조, 소비행위를 통한 동물의 고통을 인식

라 고양이 시바가 나이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사코는 시바가 죽은 이후 죄책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린다.

8) 『한겨레』, 2010. 11. 28 참조. SBS-TV 동물농장은 10년 동안 동물을 구조하면서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의 문제를 쟁점화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에 공헌했다. 또한 KBS-2TV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남자, 새로운 생명을 만나다”(2010)에서는 유기동물과 동물학대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면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기술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남성 연예인들이 유기견을 보살피고 입양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남성들이 동물을 보살피면서 동물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9) 『한국일보』, 2011. 1. 13; 『경향신문』, 2011. 1. 25.

10) 여성감독인 황윤은 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에서”(2008)를 통해 88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교통사고와 먹이 부족으로 다치고 죽어가는 야생동물의 삶을 추적하고 있다.

한 사람들은 모피 불매운동을 벌이고 모피를 입은 출연자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시청을 거부한다.¹²⁾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불법포획을 단속하고 생태도로를 마련한다.¹³⁾

(2) 여성주의와 동물 보살핌

여성주의 사이버 공동체 언니네¹⁴⁾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¹⁵⁾에서는 2, 30대 여성주의자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보살피고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는 결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대표 임순례)¹⁶⁾에는 다수의 여성주의자들¹⁷⁾이 참여하고 있다. KAR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또 하나의 약자인 동물들에게 타고난 본연의 모습으로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일”¹⁸⁾이라고 소개하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여성에서 동물로 확장하고 있다.

한편,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초국적 패스트푸드산업의 숲의 파괴와 열악한 환경의 동물사육, 거대한 육식 소비에 반대하고 채식을 실천해 왔고, 생협운동, 광우병수입소고기반대운동, 천성산도롱뇽살리기운동, 4대강사업반대운

11) KBS-1TV 환경스페셜 “야생동물, 생사의 기로에 서다”(2010)에서는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와 덫 때문에 야생동물이 부상당하고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을 취재한다. 밀렵꾼들은 모피를 팔아 목돈을 마련하지만 야생동물들은 고통받고 있다.

12) SBS-TV 동물농장 “모피의 불편한 진실”(2011) 참조. SBS-TV 드라마 “마이더스”(2011)가 그러한 예가 된다.

13) 『연합뉴스』, 2011. 1. 18; 『연합뉴스』, 2011. 1. 26; 『조선일보』, 2011. 1. 26.

14) <http://www.unninet.net/>

15) <http://www.ildaro.com/>

16) 2006년 비영리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2010년 3월 농림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동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7) 김홍남, 윤석남, 홍신자, 오숙희, 허수경, 조수미 등이 참여하고 있다.

18) <http://www.withanimal.net/html2/about.html>

동 등에 참여해 왔다. 특히, 지울 스님은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도롱뇽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지울 스님은 2003년부터 총 350여 일의 단식을 감행했고 법적 투쟁을 벌였지만,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 11월 1일 개통되었다.¹⁹⁾ 고속철도의 경제적 유용성은 중시되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의 손실은 과소평가되고 있다.²⁰⁾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생태적 그물망하에서 동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동물과의 관계와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의 책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시아로 시선을 돌려 동물의 성역으로 알려진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동물 보살핌에 대해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태국의 코끼리 구조와 보살핌

1) 코끼리 보살핌과 생태적 삶의 체험

렉이 ENP를 창립한 배경에는 고산족²¹⁾ 문화와 불교문화에 기반한 동물과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렉은 자연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19) 『경향신문』, 2008. 10. 23.

20) 한국 사회에서는 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무지한 여승의 판단으로 도롱뇽을 범정에 세우고 2조5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울 스님을 비난했다(『브레이크뉴스』, 2008. 5. 7).

21) 고산족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태국의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농사, 현금작물 재배, 기념품의 생산과 판매 등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태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한받고 차별당하고 있다(Kymlicka, 2005; 김영애, 200; 조흥국, 2007; 오명석, 2006).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오면서 생태적 감수성과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첫째, 렉은 고산족 출신으로 할아버지에게 코끼리 보살핌을 배웠다. 고산족은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있다(Kymlicka, 2005). 렉은 가족처럼 코끼리와 살면서 교감했던 어린시절의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과 관광산업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코끼리에게 연민을 느끼고 구조를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의 출발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고독한 작업이었지만, 현재는 서구의 환경운동가들과 지역주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둘째, 렉은 상좌불교의 신자로서 불교의 생태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 태국인들은 대다수가 상좌불교의 신자로서 윤리와 업보사상에 영향을 받아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김영애, 2005).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은, 모든 존재가 연기라는 그물 안에 상호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건에서 인과 법칙을 중시한다. 불교는 생명에 관한 인식을 인간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생물에게 확장한다. 즉, 불교는 인과관계 속에서 고통을 해석하고 나의 고통과 타자의 고통을 연관시키는 한편, 동물에 대한 폭력, 살생, 희생제의를 금지한다(그로스, 2005; 채플, 2005; 고영섭, 1999). 렉을 비롯해서 ENP의 직원들은 불교의 생태관에 기반해서 동물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보여 준다. 불교에서 인간은 자연을 관리, 정복, 치유하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연에게 배워야 하는 존재로서 해석된다(랭카스터, 2005).

“여기[ENP의] 사람들은 다 불교신자예요. 우리는 전생과 환생을 믿고 자신이 보살펴야 할 동물을 부처로 보거나 전생의 업보로 봐요.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 꿈은 코끼리라고. 언제나 그걸 기억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요. 코끼리를 보면서 재들을 어떻게 할까만을 고민하죠. 렉의 꿈도 코끼리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녀는 코끼리만 생각해요. 코끼리는 그녀에게 자식이나 다름이 없죠. 코끼리뿐 아니라 개, 새, 모든 것을 다 보살

피죠. 나도 이 일이 힘들다가도 코끼리를 보면 개들을 보살피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캣파의 인터뷰)

태국의 상좌부불교는 공동체의 구체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대승불교에 비해 계율, 수행, 해탈 등 개인의 수련에 관심을 갖는다(김영애, 2005: 140). 하지만 태국의 승려들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 이유는 ‘상좌부불교에서 숲이 명상과 금욕적 수행을 위한 장소이고 물질적 단순함과 자연의 조화를 가르치는 중요한 장소’(스웨어러, 2005; 해리스, 2005)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렉은 숲의 파괴가 코끼리와 인간의 생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고, 치앙마이 지역의 승려들과 연대해서 벌목에 반대해 왔다. 또한 그녀는 벌목반대를 넘어서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원과 방문객들은 황폐화된 숲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 삽과 공평이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은 후 옆에 대나무 푼대를 꽂아 나무가 잘 자라도록 노끈으로 묶어 준다. 숲의 복원은 코끼리의 멸종을 막고 서식지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무심기는 ENP의 중요한 사업이다.

한편, ENP의 생활방식은 생태지향적이다. 전기는 필요한 곳만 사용하고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밤에 숙소로 돌아갈 때 방문객들은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사용한다. 쓰레기는 최소화하고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ENP에서 화장실과 식탁의 휴지 외의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매점에서는 간단한 과자와 맥주, 음료 외에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 식사때 사용하는 접시와 컵은 사기로 되어 있어 무겁고 이가 나간 것들이 많지만 방문객들은 이를 개의치 않는다. 음식 쓰레기는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또한 코끼리 먹이로 베어 온 사탕수수의 줄기는 다시 반으로 잘라 밭에 심고, 코끼리 우리를 청소할 때 수거한 코끼리의 똥, 먹다 남은 풀, 흙 등은 비료나 종이 제작에 재활용한다. 방문객들은 ENP를 떠나면서 물병, 옷, 신발, 모자 등을 기증하고, 이러한 기증품은 재활용되어 새로운 방문객과 직원들

에게 사용된다. 방문객들은 생태적 그물망 속에서 자연, 동물, 인간의 관계를 인식한다. 이들은 생태적 삶을 통해 시장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익숙해 있는 소비지향적인 삶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한다.

2) 코끼리에 대한 연민과 보살핌의 실천

태국에서 코끼리는 절의 문에 걸린 수호동물이었고,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 신성한 동물이었다(안민기, 2008; 전대완, 2002: 46-47). 하지만 근대 이후 코끼리는 벌목사업에 동원되었고 벌목이 중단된 이후에는 관광산업을 위해 이용되었다. 코끼리를 존중하고 코끼리와의 조화를 중시하던 생태적 사고는 동물이 인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 사고로 변화되었고 동물의 희생을 묵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숲의 개발이 지역의 자급자족 경제를 파괴하고 가난을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벌목은 생물종의 파괴와 연결되었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KBS-1TV의 환경스페셜(2006)에서는 고산족의 남자아이들이 가난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코끼리 조련사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어린 조련사들은 가난 때문에 아기코끼리를 쇼에 동원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ENP는 코끼리를 포함해서 개, 고양이, 새 등을 보살피고 있다. 직원들은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코끼리 학대의 실태를 설명하고 활동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 “Elephant Return to the Wild”(2007)는, 코끼리들이 서커스 훈련을 통해 돈을 벌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카메라는 벌목을 통해 다친 코끼리, 먹을 것이 없어 도시에서 쓰레기를 먹는 코끼리, 바나나를 파는 코끼리, 축제에 동원되어 축구하고 그림 그리기는 코끼리, 장난삼아 쏜 새총에 맞아 시력을 상실한 코끼리, 밤에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아기코끼리 등을 보여 준다. KBS-1TV 환경스페셜이 취재한

“코끼리, 벼랑 끝에 서다”(2006)에서는 조련사들이 쇼를 위해 아기코끼리를 폭력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아기코끼리들은 머리를 채찍으로 맞아 피를 흘리면서 온몸으로 저항한다. 코끼리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눈과 울음소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렉은 “코끼리들이 인간을 위해 쇼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면 행복한가? 코끼리들은 숲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렉과의 인터뷰)라고 말한다. 방문객들은 코끼리의 고통에 공감하고 ENP의 코끼리 구조활동에 대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다.

렉은 동물들의 어머니로 자처하고 코끼리, 개, 새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그러나 코끼리들이 벌목, 쇼, 트레킹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ENP의 삶에 쉽게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벌목, 트레킹, 쇼를 통해 고통받은 코끼리들이 ENP에 도착해서도 행복을 찾는 것만은 아니에요. 몇몇 코끼리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쇼를 하면서 환호를 받았던 코끼리들은 자신이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상처받은 코끼리들은 사람을 기피하기도 하지요.”(넷, 24세, 남성)

렉을 비롯한 직원들은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고 코끼리는 건강을 회복한다. 코끼리는 하루에 10kg의 많은 양을 먹고 배설한다. 또한 몸집이 큰 코끼리를 먹이고 씻기고 돌보는 일은 힘든 노동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불평하지 않고, 코끼리가 상처를 회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한편, 방문객들은 장애를 입은 동물들을 보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성찰한다. 코끼리 조키아(?~)는 벌목사업에 동원되었다가 시력을 잃었다. 조키아는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말라이통(1986~)은 불법 벌목에 동원되었다가 오른쪽 다리의 끝이 절단되었다. 말라이통은 걸음이 약간 불편하지만 아기코끼리 창립

(2009~)의 유모 노릇을 하면서 ENP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방문객들은 인간의 폭력으로 야기된 코끼리의 장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코끼리들이 구조되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생태여행은 코끼리와 피부 접촉을 하고 교감하는 시간이다. 방문객들은 동물과의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동물의 반응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개들은 식사 시간에 방문객들 옆에 앉아 있고, 숙소의 열린 방문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개들은 낮에는 코끼리와 함께 풀밭에서 뒹굴다가, 밤이 되면 숙소 앞에 자면서 방문객들을 지켜준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풀밭을 뛰어다니느라고 상처투성이가 된 개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매준다.

한편, 오후 4시 렉은 아기코끼리 파마이(2009~)와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렉은 코끼리를 폭력으로 훈육하는 쇼 등에 반대하고 사랑으로 인간과 코끼리의 정서적 관계를 중시한다. 렉의 신념은 마호(mahout)²²⁾를 교육할 때에도 반영된다. 렉은 파마이의 다리 밑에 들어가 앉아 껴안고 노래를 불러주면, 파마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귀를 펴는 편이다. 방문객들과 마호는 코끼리 우리 옆에서 레몬트리와 잎과 생강을 넣어 끓인 물로 부드러운 진흙을 만든다. 아기코끼리가 잠들면 렉과 함께 코끼리의 온몸에 진흙을 발라 준다.

자본주의 교환관계에서는 내 것을 좀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익’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살핌은 무급이나 저임금의 가치로 평가절하되어 있다(폴브레, 2007). 이러한 관계는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에서 동물 보살핌은 손해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교환관계의 손익계산법과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보살핌은 내 것을 무상으로 주는 ‘선물’이다. 선물의

22) 코끼리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고 코끼리를 여기저기 데리고 돌아다닌다.

목적은 내가 준 것보다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기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Vaughan, 1997; Anderson, 1990: 179-205). 또한 시장의 계약관계와 달리, 보살핌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체가 능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의 관계를 의미한다(Maihoffer, 1998). 또한 보살핌은 타자를 배려하면서도 결코 타자를 짐이나 부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Tronto, 1993: 102). 직원과 방문객들은 동물을 보살피기 위해 발, 우리, 부엌에서 일하면서 피곤에 지쳐 있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방문객들은 한낮에 코끼리가 강에서 목욕한 후 진흙에 뒹굴면서 만족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들은 “더 이상 코끼리쇼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직원들은 동물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동물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동물과의 정서적 유대에 만족한다.

3) 생태여행에서 동물 보살핌의 책임과 한계

동물권의 이론가와 동물운동가들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즉, 사냥, 서커스, 로데오, 동물원, 실험, 육식에 반대하고 가축이나 모피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동물을 착취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며, 동물학대를 하는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습격한다(롤랜즈, 2004: 318; Adams, 2007: 57).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정서적, 육체적 욕구를 돌볼 의무를 갖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한다(롤랜즈, 2004: 306-308). 인간은 야생동물보다 반려동물과 동물원의 동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책임감을 갖는다고 간주된다. 반려동물이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자율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연 속에 사는 야생동물보다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동물원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멸종동물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설립되었지만,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동물운동가들은 동물원의 폐지를 주장한다(롤랜즈, 2004: 304; Adams, 2007; 싱어,

1999: 57).

ENP는 코끼리가 쇼나 트레킹, 구걸과 상업행위에 동원되는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ENP는 코끼리를 구조해서 치료하고 보살핀다. 그러나 이 코끼리들이 구조 이후에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렉이 파마와 교감하는 시간에 많은 방문객이 접근함으로써 아기코끼리가 예민해져서 낮잠을 즐기지 못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풀밭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먹이를 먹는 코끼리에게 방문객들이 다가가서 코끼리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코끼리의 복지를 위한 것인가에 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태여행은 코끼리 보살핌을 위한 비용을 창출하지만, 코끼리들을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코끼리는 초식동물이지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고 위협한다. 가이드들은 방문객에게 마호 없이 코끼리 우리에 다가가지 말고, 풀밭에서 코끼리가 지나갈 때 진로를 가로막지 말라고 당부한다. 렉은 '사랑의 훈육'을 강조하면서 코끼리를 채찍으로 조련하는 데에 반대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코끼리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생동물인 코끼리를 훈육하는 것은 코끼리의 복지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아기 코끼리에게 껌질을 까서 바나나를 먹이고 온몸에 진흙을 발라 주며, 강에서 코끼리를 목욕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코끼리가 야생동물로서 살아간다면 불필요하다. 생태여행은 숲과 야생동물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벌목 이전의 숲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여행은 트레킹이나 쇼에서처럼 코끼리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ENP는 코끼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코끼리를 가축으로 만들고 '동물원의 변형'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태국에서 숲은 황폐화되어 있고 코끼리가 ENP를 나가는 순간 코끼리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인간에게 포획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ENP의 생태여행은 벌목과 관광산업 등으로 상처받은 코끼리들

이 구조되어 보살핌을 받고, 방문객들이 코끼리와 관계를 맺는 장이 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코끼리와 인간이 함께 노는 생태여행이 코끼리의 복지를 위한 대안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야생동물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도록 인간이 야생동물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한다. 클레멘트는, 야생동물을 방임하는 것을 “자연적이고 소극적인” 의무로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적극적인” 의무를 제안한다(Clement, 2007: 304). 즉, 클레멘트는, 인간의 책임이 야생동물에 대해 개입하지 않거나 보살핌을 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가축, 반려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보살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NP의 보살핌은, 인간이 반려동물, 농장의 가축, 동물원의 동물을 책임져야 하고 야생동물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분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보여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에 대한 책임이 관심과 배려에 기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5. 결 론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동물의 권리와 보살핌에 대한 문제의식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여성주의자들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인간의 책임을 의미한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의존해야 하고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인간은 동물과의 정서적 관계 속에서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동물의 삶에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서구의 개발, 남성중심적인 세계관이 여성, 자연, 동물과의 관계를 변형, 왜곡시켰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해서 또다른 타자인 동물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조화
동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ENP의 보살핌은 자연, 동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
의 사례가 된다. 서구의 개발로 인한 자급자족경제는 파괴되었고 코끼리를
숭상해 왔던 태국의 문화는 변형되었다. 또한 인간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용되는 과정에서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은 코끼리의 몸은 별목으로 황폐화
된 숲과 인간의 가난뿐 아니라 동물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려는 인간중
심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ENP는 태국의 한 여성이 별목, 관광산업, 구걸 및 상업행위 등으로 학대
받는 코끼리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코끼리를 인간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지배문화에 저항하면서, 텍은 코끼리와 가족처럼 살았던
고산족 문화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동물에 대한
감수성과 통찰력을 보여 준다. 텍은 코끼리의 보살핌과 숲의 복원, 인간의
삶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왜곡된 관계를 회복,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은 동물과의 교감과 보살핌을 통해 체득된
것으로 직원과 방문객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ENP의 보살핌이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지 않고 야생동물인 코끼리를 가
축으로 만들고 생태여행에 적합한 방식으로 숲을 복원시킨다는 비판도 있
다. 그러나 ENP는 동물에 대한 이용과 지배에 반대하고 동물과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물과의 관계에서 통찰력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고영섭. 1999. “불교의 생태관”. 김용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울: 나남출판.
- 그로스, 리타 M. 2005. “인구, 소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 M. E. Tucker and D. R. Williams 공편.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ed.). 1998. *Buddhism and Ecology: 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기든스, 앤소니. 1996.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서울: 새물결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길리건, 캐롤. 1997.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역. 서울: 동녘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김영애. 2005. 『태국사』. 서울: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진석. 2005. 『동물의 권리와 복지』.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랭카스터, 루이스. 2005. “불교와 생태학: 집단적 문화인식”. M. E. Tucker and D. R. Williams 공편.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ed.). 1998. *Buddhism and Ecology: 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러딕, 사라. 2002.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이해정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Ruddick, S. 1989.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New York: Ballantine).
- 롤랜즈, 마크. 2004. 『동물의 역습』. 윤영삼 역. 서울: 달팽이 (Rowlands, M.

2002. *Animal like Us*. NY: Versobooks).
- 류시화 편역. 2003.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서울: 김영사.
- 리치, 아드리엔느. 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 서울: 평민사
(Rich, A. C. 1976. *Of Woman Born*. New York : Norton)
- 마르티, 쿠르티. 1995. 『창조신앙』. 이제민 역. 왜관: 분도 (Marti, K. 1983. *Schöpfungsglaube*. Stuttgart: Radius-Verlag GmbH).
- 마타이, 왕가리. 2005. 『검은 대륙의 초록 희망』. 이해경 역. 서울: 책씨 (Mathai, W. 1985. *The Green Belt Movement*. New York: Lantern Books).
- 머천트, 캐롤린. 2005. 『여성과 생태학, 그리고 과학혁명』. 전규찬 · 전우경 · 이윤숙 역. 서울: 미토 (Merchant, C. 1980.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 바르보, 로베르. 2009. 『격리된 낙원』. 강현주 역. 서울: 글로세움 (Barbault, R. 2006. *Elephant dans un jeu de quilles: l'homme dans la biodiversité*. Paris: Seuil).
- 스밋, 바바라. 2006. “인간이 아닌 인격체와 친구하기”. 쿨시, 존 편. 『동물로 산다는 것』. 전세재 역. 서울: 평사리 (Coetzee, J. M. (ed.). 1999. *The Lives of Animals*. New Jergy: Princeton University).
- 스웨어러, 도날드 K. 2005. 『현대 태국의 불교생태학에 대한 해석학』. M. E. Tucker and D. R. Williams 공편.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ed.). 1998. *Buddhism and Ecology: 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시바, 반다나. 1998. 『살아남기: 여성, 생태학, 개발』. 강수영 역. 서울: 솔 (Shiva, V. 1988.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 Zed).
- 시에틀 추장 수카미쉬족과 두와미쉬 족. “어떻게 공기를 사고판단 말인가”. 류시화 편역 2003.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서울: 김영사.
- 싱어, 피터. 1999. 『동물 해방』. 김성한 역. 고양: 인간사랑 (Singer, P. 1975.

Animal Liberat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 아담스, 캐럴 J. 2006. 『육식의 성정치: 페미니즘과 채식주의의 역사의 재구성』. 이현 역. 서울: 미토 (Adams, C. J. 1990. *The Sexual Politics of Meat: a Feminist-Vegetarian Critical Theory*.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 안민기. 2008. 『아이콘 오브 타일랜드』. 서울: 북센스.
- 오명석. 2006. “낙원과 야만: 한국인의 동남아 관광 속에 나타나는 동남아의 이미 지”. 문옥표. 『우리 안의 외국 문화: 관광과 음식을 통해 본 문화소비』. 서울: 소화.
- 오히에사. 2004. 『인디언의 영혼』. 류시화 역. 서울: 오래된 미래 (Eastman, C. A. 1916. *From the Deep Woods to Civi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전대완. 2002. 『방콕이야기』. 서울: 실천문화사.
- 젠슨, 데릭·조지 드래펀. 2007. 『약탈자들: 숲을 향한 전방위적 공격』. 김시현 역. 서울: 실천문화사 (Jensen, D. and G. Draffan. 2004. *Strangely like War: the Global Assault on Forests*. Chelsea Green Publishing: Vermont).
- 조흥국. 2007.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서울: 소나무.
- 채플, 크리스토퍼 키. 이현옥 역. 2005. “본생담에 나타난 동물들과 환경”. M. E. Tucker and D. R. Williams 공편.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ed.). 1998. *Buddhism and Ecology: 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폴브레, 낸시.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윤자영 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Folbre, N.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New Press).
- 한면희. 1999. 『환경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 한면희. 2007. “문화와 종교 그리고 환경윤리”. 한국환경철학회 엮음. 『생태문화와 철학』. 부산: 금정.

해리스, 이안. 2005. “불교, 그리고 환경적 관심에 대한 답론”. M. E. Tucker and D. R. Williams 공편.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역. 『불교와 생태학』.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ed.). 1998. *Buddhism and Ecology: 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호켄, 폴. 2007. 『축복받은 불안』. 유수아 역. 서울: 에이지 21 (Hawken, P. 2007. *Blessed Unrest: how the Largest Movement in the World Came into Being, and Why no One Saw It Coming*. New York: Penguin Books).

후쿠오카, 켄세이. 2010. 『숨겨진 풍경: 죽음을 은폐하는 사회에서 생명을 만나다』. 김경인 역. 서울: 달팽이출판 (福岡賢正. 2004. 『隠された風景: 死の現場を歩』. 鹿児島: 南方新社).

Adams, C. J. 1993. “Feminist Traffic in Animals”. Greta Gaard(ed.).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Adams, C. J. 2007. “The War on Compassion”. Josephine Donovan and Adams, Carol J. (eds.).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nderson, E. 1990. “Ethical Limitations of the Market”. *Economics and Philosophy* 6: 179-205.

Clement, G. 2007. “The Ethic of Care and Problem of Wild Animals”. J. Donovan and C. J. Adams (eds.).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urtin, D. 2007. “Toward an Ecological Ethic of Care”. J. Donovan and C. J. Adams (eds.).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onovan, J. 1993. “Animal Rights and Feminist Theory”. G. Gaard (ed.).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Donovan, J. 2007. “Attention to Suffering: Sympathy as a Basis for Ethical

- Treatment of Animals”. J. Donovan and C. J. Adams (eds.),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novan, J. and C. J. Adams. 2007. “Introduction”. J. Donovan and C. J. Adams (eds.),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ard, G. 1993. “Living Interconnections with Animals and Nature”. G. Gaard (ed.),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Goodin, R. E. and D. Gibson. 2002. “The Decasulization of Eldercare”. E. F. Kittay and E. K. Feder (eds.), *Subject of Care*, L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 Held, V. 2006. *The Ethics of C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ttay, E. 1999. *Love’s Labo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ymlicka, W. 2005. “Subject of the Nation Without Citizenship”. W. Kymlicka and B. He(eds.),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ihoffer, A. 1998. “Care”. A. M. Jagger and I. M. Young (eds.),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Malden, Mass.: Blackwell.
- Regan, T. 1983.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licer, D. 2007. “Your Daughter or Your Dog?” J. Donovan and C. J. Adams (eds.),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New York: Routledge.
- Vaughan, G. 1997. *For-giving: A Feminist Criticism of Exchange*, TX: Anomaly Press: Plain View Press.
- Walker, M. U. 1998. *Moral Understandings: a Feminist Study in Ethics*, New York: Routledge.

■ 신문기사

- “삼척시, 상정리 2만㎡ 야생동물보호구역 재지정”. 『연합뉴스』. 2011. 1. 26.
- 김우영. “고양이 무참히 죽인 20대여성 동영상 충격”. 『헤럴드경제』. 2010. 6. 29.
- 도재기. “동물에게 좋은 환경이 인간에게도 좋은 환경…각계, 구제역 계기로 자성 고조”. 『경향신문』. 2011. 1. 25.
- 법철 스님. “개인적 소신집착으로 국민민복 상습 외면마라”. 『브레이크뉴스』. 2008. 5. 7.
- 손장훈. “인간과 야생동물은 서로 다른 길 사용해야”. 『조선일보』. 2011. 1. 26.
- 오미환. “종교계 구제역 제양, 반성과 책임을 한목청”. 『한국일보』. 2011. 1. 13.
- 이승준·김민경. “연평도에 남은 반려동물 어찌나”. 『한겨레』. 2010. 11. 28.
- 이혜미. “가만히 있는 고양이 던져 죽였다’ 주인 폭로 충격”. 『헤럴드경제』. 2010. 9. 15.
- 장충식. “개 연쇄도살 고교생 2명 첫 ‘동물학대 혐의’ 영장”. 『서울신문』. 2011. 1. 22.
- 최희진. “지울스님 ‘난 지금 이 사회 흐름에 문제제기 하는 것…천상산, 못 놓는다’”. 『경향신문』. 2008. 10. 23.
- 형민우. “야생동물과 상생하는 법”. 『연합뉴스』. 2011. 1. 18.

■ 영상 자료

- “남자의 자격: 남자, 새로운 생명을 만나다” 1, 2. KBS-2TV. 2010. 11. 14/21 방송.
- “당신이 입는 모피의 불편한 진실”. 동물농장. SBS-TV. 2011. 1. 30 방송.
-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예의”. KBS시사기획 KBS10. KBS-1TV. 2010. 12. 14 방송.
- 김새별 연출. 고해림 글. “도시의 개”. MBC스페셜. MBC-TV. 2010. 10. 22 방송.
- 박용석 연출. “야생동물, 생사의 기로에 서다”. 환경스페셜. KBS-1TV. 2011. 1. 12 방송.
- 송철훈 연출. 나은희 글. “아시아 환경기획 코끼리, 벼랑끝에 서다”. 환경스페셜. KBS-1TV. 2006. 2. 22 방송.
- 윤미현 기획. 오상광 연출. “노견만세”. MBC 스페셜. MBC-TV. 2009. 7. 3 방송.
- 이누도 잇신 감독. “구구는 고양이이다”. 일본. 118분. 2008. 10. 16 개봉.

황윤 감독. “어느 날 그 길에서”. 한국. 97분. 2008. 3. 28 개봉.
Duermeijer, M. “Elephant, Return to the Wild”. USA. 2007. 10.

Abstract

A Research on Pain of Animals and Care: Focused on Elephant Nature Park in Thailand

Lee, Dongok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in Ewha Womans University

In Korean society the abuse of animals such as deserted animals, euthanasia, mass cull due to foot-and-mouth disease raise the issu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and makes a search for the responsibility, rights and care of animals. Feminists have responded to the pain of animals and participated in the rescue of animals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that the western development and androcentrism transformed and distor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nature, and animals.

The method of the research conducted both the investigations of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field work. The field work carried out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he interviews with the manager Lek and the members of the staff in the case of thailand. Thai people have respected elephants, but they have regarded elephants as the means of making money since the modern age. Therefore, elephants have suffered from logging, trekking, circus, begging, and business.

Lek, the founder of ENP, has rescued the injured elephants on the basis of emotional solidarity with animals and the ecological sensitivity

of hill tribe and Buddhist culture. Her insight heals and restores the relation between animals and humans, distorted by the violence and domination of the humans. The care of animals needs the responsibility of humans. When humans listen to the animals' need in their position, the bond can be strengthened and the relationship can change equally.

Key words

feminism, animals, pain, care, relation

논문 접수일: 2011년 2월 24일

논문 수정일: 2011년 3월 14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10일